

힐링 콘서트 (3·판)

말 통하는 병원 만들기 '소통의 리더십'

'커맨' 리더 되지 않으려면 상대방 눈높이에 맞추고 다가가야

리더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간호사 성장과 병원 발전 이끈다

"말 통하는 병원을 만드는 소통의 리더십을 발휘하라." 병원간호사회가 간호부서장들을 위해 마련한 '소통리더십' 교육에서 강연한 박영근 아담재 대표는 조직과 구성원을 성장시키는 커뮤니케이션에 대해 조언했다. 박영근 대표는 "커뮤니케이션에 까마득한 '커맨'이 늘어나면 불통의 사회가 된다"면서 "말이 통하는 병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리더가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커맨 소리를 듣는 상사

가 되지 않으려면 상대방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며, 술선수법의 자세로 구성원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야 한다"면서 "상대방에게 맞추려고만 요구할 때, 가르치려고만 할 때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소통은 스킴이 아니라 사람들과 진심으로 접촉하는 것이며, 커뮤니케이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며 "내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행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바탕에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영근 대표는 커뮤니케이션

잘하는 좋은 리더가 되기 위한 자세에 대해 조언했다. 첫째, 긍정적으로 평가하라. 리더의 역할은 구성원들의 공정을 키우고 부정을 줄이는 것이다. 구성원들의 부족한 부분에 대한 지적을 버려야 한다. 잘한 일에 대한 칭찬을 최대화하고, 잘못에 대한 지적은 최소화하라. 지적을 할 때는 객관적으로 고쳐야 할 부분만 짚는 것이 좋다. 둘째, 결과가 아닌 과정을 격려하라. 결과가 목적이 되면 쉽게 좌절할 수 있다. 구성원들이 과정을 통해 배움을 얻을 수 있도록 격려하라. 셋째, 믿음을 갖고 기다려라. 믿음은 누군가 줘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먼저 믿고자함으로써 생겨난다. 사람이 성장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구성원들이 실수를 통해 스스로 깨닫고 성장할 수 있도록 믿고 기다려줘야 한다. 박영근 대표는 "커뮤니케이션의 궁극적인 목표는 구성원들의 성장을 통한 조직의 발전이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했다. 최수정 기자 sjchoi@koreanurse.or.kr

간호사 의사의 '의사소통 능력' 가장 중요

의사 의사의 '진료 능력' 1순위로 꼽아

응급의학과 의사가 갖춰야 할 능력에 대해 간호사는 의사소통 능력을, 의사는 진료 능력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급의학과 의사의 역량에 대해 의사와 간호사 간에 인식차이가 있어 서로 간 이해와 소통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중앙대병원 응급의학과 김찬웅 교수가 실시한 '의사의 역량을 바라보는 의사와 간호사의 시각 차이' 연구에서 밝혀졌다. 응급의학과 의사와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했다. 연구결과 응급의학과 의사가 갖춰야 할 역량 1순위로 의사는 '진료 능력'을, 간호사는 '의사소통 능력'을 꼽았다. 특히 간호사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의사소통 능력'을 의사는 최하위로 꼽았

다. 의사들이 생각하는 역량은 '진료 능력' '관리 능력' '의사소통 능력'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간호사들이 생각하는 역량은 '의사소통 능력' '진료 능력' '관리 능력' 순으로 나타났다. 김 교수는 "의사들은 간호사들이 더 많은 대화와 소통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간호사들은 의사들이 정확한 진단에 집중하느라 대화가 지연되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면서 "의사와 간호사 간 효과적인 협력을 위해서는 서로의 해석 차이가 있음을 이해하고 소통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 논문을 대한의료커뮤니케이션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발표했으며 우수 구연상을 받았다. 최수정 기자 sjchoi@koreanurse.or.kr

여성폭력 사이버 상담 홈페이지 개편

여성가족부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개편된 '여성폭력 사이버 상담'(www.women1366.kr) 홈페이지를 오픈했다. 기존의 여성폭력 사이버 상담·신고센터 홈페이지를 개편한 것으로 도메인주소는 '여성긴급전화 1366'을 넣었다. 개편된 홈페이지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전문상담원과 1대1로 채팅상담이 가능하다. 모바일로도 이용할 수 있다. 게시판 상담도 이용할 수 있다. 카카오톡 상담채널도 신설됐다. 상담 외에도 가정폭력 자기진단 체크리스트 등이 추가됐으며, 가정폭력상담소 등 피해자 시설, 여성폭력 예방 홍보자료,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정책 안내 등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최수정 기자 sjchoi@koreanurse.or.kr

국가정신건강 정책솔루션 포럼 열려

정춘숙 국회의원 주최 ... 정신간호사회 등 공동주관

국가정신건강 정책솔루션 포럼이 시작됐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주최, 정신간호사회를 비롯한 19개 기관 공동주관으로 1차 포럼이 8월 9일 국회에서 열렸다. 2차 포럼은 8월 23일, 3차 포럼은 9월 6일 열린다. 이번 포럼은 2017년 5월부터 시행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의 시행과 정책, 개선 및 발전방향에 대해 당사자 및 관련 학·협회가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춘숙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포럼이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환기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면서 "포럼을 통해 도출된 의견들이 정책과 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수정 기자 sjchoi@koreanurse.or.kr



1차 포럼은 '정신건강정책 거버넌스와 정신건강서비스 개선에 관한 전략과 정책' 주제로 진행됐다. 중독 및 자살예방사업 추진 거버넌스 구축, 맞춤형 회복지향적 치료, 회복지향적 정신건강서비스 질 향상 방안과 전략,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체계, 연속적·포괄적 정신건강서비스를 위한 지불제도 혁신 등의 이슈가 다뤄졌다. 박경덕 정신간호사회장은 주제 발표를 통해 "초기 정신질환자의 회복지향적 정신간호 및 재활서비스 제공을 위해 환자들을 24시간 돌보는 간호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수정 기자 sjchoi@koreanurse.or.kr

자문형 및 가정형 호스피스 시범사업 실시

암 이외에 말기환자도 호스피스 이용

보건복지부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에 근거해 자문형 및 가정형 호스피스 건강보험수가 시범사업을 8월 4일부터 시작했다고 밝혔다. 연명의료결정법에서는 호스피스 서비스 대상을 말기 암환자에서 AIDS,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 등 말기 비암환자까지 확대했으며, 서비스 유형도 입원형·자문형·가정형으로 명확히 했다. 정부는 생존기간이 길고 질환치료를 병행해야 하는 비암질환의 특성을 고려해 일반병동에 입원하거나 가정에서 지내면서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자문형 및 가정형 호스피스 시범사업을 마련했다. 자문형 호스피스 시범사업은 올해 처음 시작했으며, 가정형 호스피스 시범사업은 2015년부터 해왔으며 올해 2차 시범사업에 들어갔다. 자문형 호스피스 시범사업 기관은 총 20곳이다.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가천대 길병원 △영남대병원 △충남대병원 △울산대병원 △이대 목동병원 △한림대강동성심병원 △서울의료원 △국립암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 △안양샘병원 △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 △가톨릭대 대전성모병원 △질곡경북대병원 △포항의료원. 가정형 호스피스 시범사업기관은 총 25곳이다.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고대 구로병원 △이주대병원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전북대병원 △충남대병원 △충북대병원 △계명대 동산병원 △울산대병원 △국립암센터 △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 △안양샘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가톨릭대 부천성모병원 △경기도의료원 과주병원 △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 △대구의료원 △질곡경북대병원 △부산성모병원 △성가톨릭병원 △서울시북부병원 △전진상의원 △모현센터의원 △새오름가정의원 △갈바리의원. 1년간 운영 결과를 토대로 제도 및 수가체계를 보완해 본사업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주혜진 기자 hjoo@koreanurse.or.kr

2017년 온라인 보수교육 콘텐츠 개발 2차 재공고

대한간호협회는 2017년 온라인 간호사 보수교육 콘텐츠 개발팀을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기관 및 전문가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Table with 2 columns: 주제 (Topic) and 설명 (Description). Topics include: 눈, 귀, 코의 건강문제와 간호, 혈액·조혈기계의 건강문제와 간호, 간, 담도, 췌장의 내·외과적 치료와 간호, 신경계 환자간호 II- 특수질환 중심, 임상사례별 응급환자 간호.

- 참가방법: 개발자는 여러 주제에 대해 중복 지원이 불가함
●개발책임자 신청자격: 1) 간호계: 대한간호협회 등록회원에게 한함
2) 비간호계(의료인): 간호계 1인이 공동개발책임자로 구성되어야 함
●제출서류: 온라인 간호사 보수교육 콘텐츠 개발신청서, 자가점검표, 최종학력증명서, 재직증명서
●신청마감: 2017년 9월 1일(금), 이메일 도착분(서명날인 기재)
●제출처: eduson@koreanurse.or.kr(02-2206-1911)
※ 자세한 사항은 KNA에듀센터 홈페이지(edu.kna.or.kr) 참고

2017년도 제9회 보험심사관리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Exam schedule for Insurance Examiner. Includes sections for 1. 응시자격 (Application Requirements) and 2. 시험일정 (Exam Schedule) with a detailed table of dates and times for various exam stages.

Advertisement for Ganhohak (간호학전문) featuring a large banner '시작부터 합격까지 '간호교육연수원'은 다릅니다.' and a list of benefits: 1. Parallel learning system, 2. BMW (bus, train, subway) time utilization with online/mobile support, 3. 1:1 management service for non-self-learners.